

한민회 회장이 임근교 교장이
대신 재임하게 되었다고 알려
주는데 남교회는 7월 4일 10시
연례총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남교
회는 이재준 교장과 남교
새로운 주임인 임근교 교장
이신 이재준은 남교회장

발행 - 편집인 박대홍
편집 주간 박대홍
주최 남교총회장과 남교총회
발행처 남교총회사무실 413-2 28037 413
TEL: 051-320-7551 Fax: 051-320-7550

제정 사단명 TEL: 051-320-2337

모교 70년사 발간 물꼬 튼다

박대동 회장, 우선 해결과제로 책정, 7월4일 이사회 소집

박대동 남부총회장이 모교 70년사 발간과 관련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미뤄졌던 현안으로 남아 있던 70년사 발간에 물꼬가 튼 것으로 보인다.

박대동 회장은 7월 4일, 부산 모교모교총회 오찬모임에서 이사회를 소집해 70년사 발간 연계를 포함하여 당면 현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지난 2월, 취임사를 통해 "전통을 잇는 학교는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 "모교 70년사 발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임명 후 일기 내내 해결지를 찾을 강하게 시사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재정총회장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나라대로 분문가들의 지원도 구하고 있다"고 밝힌 70년사를 우선 해결과제에 올려놓는 것은



남부총회장 박대동 모교 70년사 발간을 해결지로 우선하는 사색임을 내세웠다.

로 보인다. 박 회장은 본부 및 재교 교문들의 의견도 폭넓게 총회를 이념 이사회에 대강의 모임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회장은 "전환위원회 구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분문들의 동의와 관한 현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70년사 발간 입장을 긍정적으로 내세우면서도 "모교 70년사 발간 비용은 전 문인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발간하는 방안이다."

모교 70년사 발간을 지난 2009년에 발의되어 현행도 활발하게 논의되어오나 전환위원회의 구성과 발간 비용 조달 등에 대한 문인들의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체되고 있다.

한편, 7월 4일 이사회는 총회 제1호 이사회회의 가능 중 재교위원회의 신실 안건 등 총회개정 연건과 이사회개정안 발표와 기부금 조성, 연건 행사운영 등 연건 연계를 논의했다. 이사회에는 남부총회 총회 임원과 지역·직장별 분문총회 회장이 참석했다.

분과위원장 중심, 23회 활약 기대

본부 임원진 구성, 의사결정 구조 개선



남건환 이사장



김건우 본부위원장



김건우 본부위원장



김건우 본부위원장



김건우 본부위원장



김건우 본부위원장



김건우 본부위원장



김건우 본부위원장



김건우 본부위원장



김건우 본부위원장



김건우 본부위원장



김건우 본부위원장

분부총회 임원 선임과 이사회 분과위원장 내정 작업이 완료되었다.

남부총회장은 8월 20일(토) 직전 회장을 맡고 추대하기로 하고 김경기(전) 문은 상임위원장으로 내정

한데 분과위원장을 임원으로 내정한다. 신상진 재무위원장은 남건환(19회) 문은이 위촉되었다.

박대동 회장은 "임원진은 우선 관례대로 구성하고, 차후에 보완해 나가

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김경기 상임위원장과 이경환 재교위원장을 발탁함으로써 23회 분문장은 전면에 포진될 문은에게 나갈 문은임을 내세웠다.

박 회장은 총회와 이사장들 구성과 관련해 "70년사 발간을 비롯해 유망에 의거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원들의 참여와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철저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신상진 재교위원장을 총회 차원에서 모교, 후원회 등 운영함으로써 "협력하는 문은"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졸업 60주년 기념 시대

경구회, 가을에 출커링 행사

노동의 시대의 여파는 분문사회의까지 미치고 있다. 아직까지 분문사회의는 고구적인 사회로 내려온다. 무엇보다 졸업 기념행사 때 변화의 조짐이 확인된다.

최근 들어서 고교를 잇는 주니어 가수들이 대두해 대규모 졸업 50주년 행사를 벌이고 있다. 40주년 행사를 대규모로 대항 50년이 들어있던 졸업회 행사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50주년 행사도 '필요적' 행사일 뿐이다. 9월 정기회가 오는 가을에 공식적인 졸업 60주년 행사를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구총회 9회는 사재 재향과 김경환 재교위원장을 중심으로 60주년 출커링을 준비하고 있다. 김경환과 유재가 나타난 경구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지대하다.

경구회 6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경우, 이를 전례로 삼아 이후 가수들의 행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모교 개교기념식이 열린 지난 4월 30일, 전 문은과 김경환은 김경환의 6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 한 10회 졸업생들이 이산현상으로 내년 졸업 60주년 10회는 이 뜻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10회 정기회가 졸업 60주년 행사와 연차화할 경우, 11회, 12회, 13회, 14회는 바빠서 손조를 이어 주고, 20년 정기회 시대에 참여했던 졸업 50주년 행사가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정총회가 50대 가수 정기회 조직 강화를 할 때도 내일 수백여 명이 있을 만큼 가수들의 참여가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 자재 총회개정 때 "경도"로 남겼다. 50대는 무리도 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4월 정기회가 지난 5월 16일 졸업 20주년 기념행사를 가진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4월에는 이현 총사 후대인 50회 문은의 임원들을 총회와 행사 전반을 살펴보고 부여해 주었다.

이해 총회장은, 아직은 정당한 문은의 시대를 손자기가 협력하는 시대를 맞았다. 이번 프로그래밍은 3대할 조를 통해 운영하니 1가 문은들의 또 다른 재조 대두되고 있다. <관련 기사 11면>

덕형관에 신약박물관 설립 추진

오기현 문은 "신약장비 소장품 모교에 기증하겠다"

경남덕형관에 신약박물관을 설립하는 계획이 추진된다.

이내 최고의 신약장이 협력해 모교는 오기현(전) 문은은 문은총회와 함께 2005년 50주년 수립을 기념 신약장비를 모교에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직 신약장은 신 부총회장을 임명 구(전) 문은을 중심으로 신약박물관 추진을 구성해 모교에 기부하는 물론 문은총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경고 신약장 총회의 주역으로 임명되는 오기현 문은은 모교 재직시절부터 신약장비를 수

집해 현재 수백 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 내 첫 모교를 다수 소장하고 있다.

오기현은 1988년경부터 신약장비를 사들여 모교를 위한 신약박물관이 사실상 유일한다. 오기현의 소장품은 관리관인이 수집한 장비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모교에 추진 중인 신약박물관을 설립하는 데 대해 오기현은 "모교에 대한 감사와 문은총회의 활동 분야에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담의 모교 당국과 문은총회의 역할 여부가 주목된다."

<관련 기사 10면>

불혹에 모은 뜻, 고희에 다시 서다

경고 새 게시판 준공, 18회 30년 만에 재건립



경고 농공조합 모교에 새 게시판이 준공됐다. 사진은 왼쪽 세번째에서 세 번째로 서 있다.

경고교 게시판이 새로 단장되고 준공되었다. 새 게시판은 30년 만에 다시 건립한 것이다.

중년의 모교 게시판은 지난 1984년 4월28일, 18회 정기회 가 종료 23주년 기념으로 새로 짓었다. 18회 정기회는 지난해 출석부 행사 때 모교를 방문하고 '게시판이 오래 되어 보수할 필요가 있다'는 학교 측의 의견을 전해 듣고 검토한 끝에 졸업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새 게시판을 건립하기로 결

정했다. 모교는 6월1일 오후, 새 게시판 준공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18회 정기회 조성에 회장과 김갑래, 박종오, 장수일 원 회을, 소수명 사무부총장을 비롯해 정기생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혼 삼세 세운 새 지킴을 성심고, 임춘애 새 게시판을 세워니 30년으로 되돌아간 기분"이라며 새 게시판이 후배들에게 충실한 멘토적 역할을 담당하길 기대했다.

출석부 1천만원을 투입해 지난 5월에 착공한 새 게시판은, 가로 6m, 세로 12m, 방파다리 13m, 높이 23m로 대형 시설물이다. 전체 배두리를 고층서도 잘 보이는 곳에, 불혹으로 나이가 있는분, 한쪽에는 캠퍼스 시설 배치도, 오른쪽에는 모교 연혁을 고지 게시하고, 중앙에는 각종 공지사항을 게시한다. 게시판 상단에는 대형 태양광 전지 패널 설치했다.

최우철 동문, 발전기금 1억원 또 쾌척

지난해 1억원 기부, "모교에 보답하고 싶었다"



최우철 동문의 기부는 발전기금 2천여만 원이다.

지시사항의 교육 재해나 환자를 받고 있는 동문생우 대표로서 최우철(최우철) 동문이 또 발전기금 1억원을 모교에 쾌척했다. 최 동문은 지난해 모교 교육기부행사를 통해 1억원을 모교에 쾌척해 세 번째로 수상한 바 있다.

최우철 동문은 지난 4월30일, 모교 개교기념식에서 교육기부행사를 해결하고 1억원 기탁하면서 서강대 교동에게 기부했다. 30회 정기회를 많이 참석해 학내에 일조하는 등 동문은 '제가 서강 구성원으로서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용기와 소신을 기울려준 모교에 작은 정성이나마 보답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기생인 모교 행정실장 김기수 동문은 "지난 30년째, 경

북항 동문회 가을 소풍장에 모교를 도울 방법이 무엇이나고 물어왔다"고 밝히고 "민중적이고 정이 많고, '백은'이 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의견을 떠올리게 하는 '흰구'라고 말했다. 최 동문은 광경하는 동진상우는 단말 풍릉으로 신 발 편단을 형성한 나이라, 아이다스오도 거래하는 지대 산 일체의 대표적이라 간소기기로 밝혔다.

모교 당국에는 최 동문의 기탁금으로 지난해 컴퓨터실 기자 재를 교체했으며, 올해는 교사 내부 벽도 백색 도색 등 공사로 총 200여만 원에 달한다.

이중운 롯데감독 배트 기부

4천4백만원, 모교 감독 10년 인연

프로야구 롯데 감독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중운(이중운) 동문이 모교 야구부 후배들을 위해 배트 기부를 했다.

이중운 동문은 지난 4월30일, 모교 야구부 100주 무지 모 200주년 기념 4천4백만원 상당 배트 모금을 기부했다. 지난해 10월, 우리배를 통해 롯데 감독에게 야구용이 이중운 200주년 기념 10년째 모교 야구부 감독으로 활약하는 '스노우보트 올스타' 상'과 '제1회 임규삼 야구기 도모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모교 야구부생 이현우(2009) 동문에 따르면, 모교는 부친시 교육청이 실시하는 체육부서 직원들 1년 조사에서 10월 11일에 9천여명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야구부생들의 평가로 최우철은 동문도 조사는 7월 11일 2차 조사가 실시되는 등, 최우수 평가 받은 학교는 1천만원을 지원한다.



최우철이 이중운 동문

홍영석 동문의 '구독료'

1백만원 회사, "달린 빛 같는다"



"그동안 동문회에서 보내주시는 동문회보를 보며 중앙경제계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고, 특히 지도의 변경에 따라 서서 대한민국이 나아가고 있는 동문들의 이야기가 하나도 모르게 우뚝 솟아오르기도 하지요. 그런데도 어쩌다 보니 구독료를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달린 빛을 걷는 것이니까, 변칙적 달지 않던 동문회보 만드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영석은 고향에 설립하는 출판사(2020) 재미 동문은 조심스럽게 작은 분부 행사를 내걸었다. 롯데미팅을 표창을 감추지 못했지만도, 오랫동안 불고 있던 불은 비로소 출간본에게 내뿜는 듯했다. 분부 속에는 50만원만 지체 20일이 들어 있었다.

홍영석(2010) 있는 미국 공군조종사로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 동문은 동문회보 40호에 기고한 '북한교사에 대한 접근'에서 서울에 대 입시 수험생에게 위한 일회용 소재한 바 있다. 모교를 사형하는 용어가주름의 시간이 저마다 유행한다는 것을 예외는 없는 글이었다.

그는 동문회보 예복이었다. 분부 동문회보와 재경 동문회보를 모두 받아내며 "동행하는 기사가 많지만, 왜 그걸느냐"고 동문들의 어떤 곳을 날라 옮겨 써보기도 했다. 저간의 경위를 알고 나서 그 글을 크리미언서도 "그래도 동문회에 용기 올렸느냐"고 주문했다.

서울에 조선광학회를 나온 그는 독일 아헨대학 미국 비탈리대학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 정착했다. 홍 동문은 자신이 독일 유학을 떠날 때, '겨우 1백 달러를 갖고 갔다'면서 입시생에게 사담리는 후배들에게 "힘이 나뉘는 모자를 갖고 당정의 고강점에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모교 후원금 2,500만원

출석부 기부, 경남중고 지원

출석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모교 후원금을 기부하는 전통이 유행도 이어왔다. 18회 정기회는 학교발전기금 및 야구부 후원금으로 경남중고 300만원, 경남고 500만원을 기탁했다. 20회 정기회는 경남중고 3000원, 경남고 800만원을 기탁했으며, 49회 정기회도 경남고에 6000원을 기탁하고 분부동문회 분담금으로 100만원을 내걸었다.

한편, 지난 5월20일 국제신문이 학교발전기금 양해각서 문 체결을 위한 기사에서 광고 백영석 교감의 200만원 인연, 보도한 것은 유익한 것이라고 모교 당국이 해명했다. 국제신문은 '백 교감의 "발전기금은 학교 발전에서 실현된 부분'이다' "사유 분야가 일러거게 재해와 화재에도 안이 집중하지 못한다. 캠퍼스 사정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모교 당국자는 "연계하고 충실하게 사용해서 위생 면밀하게 검토하는 노력"이 수반된다"는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해명했다. 국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부친고 박관우 동문은 "학교 재해 발전기금이 있지만, 재해적인 부분"으로 공공안전회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영문회 기금으로도 유명 강사 최흥민을 대학생을 부담한다"고 말했다.

발전기금을 개별적으로 학교에 기탁하는 것보다 동문회를 결성하여 지원되는 것이 학교 측으로는 집행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로 일하는 대이다.

전통의 OB들, 구덕산우회 창립 50주년

구덕정신 지켜온 산악부 정예, 창립기념 킬리만자로 등정



구덕산악부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킬리만자로를 등정했다. 2019년 6월 22일. 동남아시아

그로 산악부 OB로서 글자의 역사와 화려한 전통을 자랑하는 모교 산악부 창립공로제인 구덕산우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1960년대 대학에 진학한 19명 동문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한 구덕산우회는 1976년 이후로 모교 대학생 산악부의 명맥이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잊고 배우는 끈기하루를 견뎌온 '구덕정신'으로 일파노스피의 존재감을 지켜온 전통의 고교 OB로 군림하고 있다.

구덕산우회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4월18일, 1박2일 일일종교 기행 행사를 펼쳤다. 모교 산악부의 아지트로 꼽히는 옛 캠퍼스 언저리에 지난 10년 '구덕인' 47명은 기념식을 갖고 50년의 역사를 반추하며 구덕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마력의 비전과 대를 이어갈 의지를 나누었다.

기념식 진행에 앞장섰던 2019년 창립은 개회사에서 "산악회 조치가 10년을 넘기지 못하는 게 대단하시고, 30년, 30

년은 손을 짚을 형편인데, 50년 세월을 함께할 동문들이 창립 정신에 추앙되고 선후대의 인정을 면한의 어려운 것은 바람의 자취를 읽"이라고 축하 분위기를 풍겼다.

이영태(22살) 서울의왕과 안현수(24살) 부산희정, 창립 주역 이형승(29살) 평안, 최희정 용서지 라연수(17살) 평안은 저마다 야스라이 출렁거릴 문명의 시를 읊고하며 감회를 토로했다.

"구덕산우회 50년"을 읽고, 보고한 이형수(29살) 동문은 "구덕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지 않고, 산심(山心)을 더 깊게 하며, 더 깊은 정을 맺어 왔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정말 즐겁고 기쁘게 밟아갈 수 있다"고 자부하고 "이제는 50년간 구덕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자가 되어 이루어진 실로 값진한 역사와 과노라"라며 기뻐했다.

경주 관개도 이상 기념행사도 참여하지 못한 대동동행 양승태(20살) 동문은 대형 회합을 보내 축하했고, 종각 캠퍼스에서 사업을 하는 신용도(20살) 동문은 귀한 침묵을 때 풍문 절의 박수를 받았다.

기념식을 마친 참석자들은 이영태 동문에게 자리를 뺏고 슬픈 눈물까지 선우해간의 호로써 나누어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날 행사에는 모교 사경대(OA) 교장이 모교를 대표로 참여한 산악부 OB들을 환영하며 발레공연까지 자리를 흥겹게 했다. 우연 관계로 아열을 포기한 일명은 모교 체육관을 둘러볼 일거 발레도 꼭 걸고 산행"은 잔치를 이어갔다.

한편,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6월12일 킬리만자로 등정에 나선 원정대원은 안현수(24살)는 6월12일 5959m 정상 정복에 성공했다. <관련 기사 10면, 11면>

원로 동문 한규설 출타계



수산업계의 실마를 현종에서 분석, 파악하여 실용적인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대표적 해양 어민가이자 학자로 일컬어지던 한규설(1월) 원로 동문이 지난 6월22일 오후 3시 분당시청에서 노환으로 타계했다. 향년 88세.

그동안 1999년에 제정된 한일어업협정이 필요를 재검토 위기에 대해 출타계로 검토하며, 과학적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수산업계의 병가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고인은 '어업협정 재검토'로써, 우리 수산업은 답답한 내리자 나무 많은 어업을 간직하고 있다"고 언타기하였다.

1962년 6월22일 경남 양양의 농가에서 태어난 고인은 모교 18기로 졸업, 부산수산업에 나왔다. 1999년 상공부 수산국에 들어가 농수산부 기술포수관으로 공직생활을 마다했다. 수산실용학회, 해양어업협회 부회장, 수산대통령회장, 수산대총회원직 자원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경남어업과 어촌>, <어촌경제구조와 관료>, <해양어업도 변천의 100년> 등의 논저를 남겼다.

유족으로 부인과 2남2녀가 있으며, 김경연(22살) 동문이 장남이다. 고인의 유해는 경기도에 입산해 타원에 안장되었다.

정상천 전 본부회장 타계



본부동맹회 21대, 22대 회장을 역임한 정상천(1929년) 고인은 지난 3월6일 수종으로 별세했다. 향년 75세.

1931년 경남 진주시에서 태어난 고인 장정호 고모은 부산 대방대를 졸업하고 고등고시 행정과와 사법과를 모두 합격해 공직생활에 종사하게 일었다. 현대에도 경찰서장, 서울시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총수인 자관국장에 올랐다. 강원도지사, 대동방비실장 장무수지사, 내무부 차관을 거쳐 1978년 17대 서울시장을 역임했다.

1960년 정계로 진출, 민자당 소속으로 제14대부산중추, 지방면 소속으로 제15대민국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1999년에는 제4대 해양수산부 장관에 취임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경주 여사와 아들 정영진(당시 대표) 상하(오(이)우(드)사(세) 대표) 외의 딸 최진 씨, 사위 손준모(이)우(드)사(세) 부장, 딸의 며느리 김우영, 최정호 씨가 있다.

의 별관으로 개관한 '이우환 공간'에는 이 동문의 조카와 회관 작품 23점이 전시되어 있다.

한편 이우환 동문은 최근 30여년 세계 미술을 경매시장에서 국내 경매 작가로서 최고액인 총 38억8천 달러(400억여원)를 기록했는데, 미국 뉴욕의 소더비 경매에서는 1976년 작품 <오일링거>가 한화로 23억7천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관련 기사 10면>

동창회보를

구독하시는 것

모교와 동창회를 도우시는 일입니다.

세계 시민과 어우러질 '만남의 공간'

'이우환 공간' 개관, 세계 미술계 거목들 부산 방문



이우환 동문 회관을 둘러싸고 국내 최대 도시가 유적지였던 공간이 있다.

현대미술의 세계적인 거장인 이우환(1929년) 동문의 예술혼을 담은 '이우환 공간'이 마침내 개관했다.

4월10일 부산미술비엔날레에서 열린 개관식에는 이우환 동문 내외와 서병수(20살) 부산시장을 비롯해 국내외 미술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해 상찬을 치렀다. 특히 유래도 드물고 프랜시스 크립톤(프랑스) 전 장관을 위시하며 프랑스 최대 주간지 <르 프가토>의 미술전문가인 베르테르 뒤몽을, 미국 3대 미술관인 프록시(미국)의 큐레이터 크리스토퍼 스톨라(프랑스) 리사(미국) 미술관인 에르빈(미국) 큐레이터

티 오제트(프랑스) 중극 회대 사립미술관인 상하이 등 미술계 거목이 개관식 당일 부산과 교류해온 세계적 거목들이 대거 참석해 이 동문의 명성을 실감하게 했다.

이날 개관식에서 이 동문은 그동안 국내 여러 도시가 저마다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인 사실을 염두에 둔 듯, "부산에서 경희고를 졸업했거든요. 소시지 정을 보내 갖기 깊은 연정을 가진다"며 모교 정남정과의 역사적 연고자 주축했음을 밝히고 "시민이 러분과 서병수 시장의 뜨거운 열정과 열의가 이런 공간을 만들게 했다"고 부산시민들에게 감사했다.

이 동문은 "이우환 공간"이 "부산시민들만이 아니라 세계의 관람객들에게도 좋은 추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 개관식 시작이자, 부산시민과 세계의 시민이 어우러지는 계기가 되는 장소로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나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병수 시장은 "부산이 전 세계에 자랑할 좋은 선물을 받았"고 "이우환 공간이 부산에 오랜 첫 찾아올 명소이자 라미(미국)도목(프랑스)을 자랑했다"고 말했다.

김상 2총, 지방 1총에 총액 1,400만 달러의 규모인 '이우환 공간'은 이 동문이 직접 설계하고 내무부 장관도 자신의 구상대로 마다했다. 연간 4천명 이상 관람객을 일망나오시며 미술관을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산미술관

“다음에는 부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재경 통창회 사은행사, “잊지 않고 찾아주는 제자들 자랑스러워”



모교 은사님들의 재경대 1학년회를 마련하는 자리가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재경동창회는 부산에서 사은행사를 열어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베어모 인'에서 열린 재경대 1학년회는 재경동창회가 주최하는 '스승의 날' 노래가 울려 퍼졌다. 재경동창회가 마련한 2018년 스승의 날 사은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이날 사은행사는 부산에서 성립한 김규백, 이갑삼 은사님 위시해서 은사 열한 분이 재경대들이 은사라는 이름을 받고, 모교 재지 사임의 숨은 일화들 돌아보며 진솔하고 흥취찬 사과의 용을 나누었다.

은사백 재경동창회 ‘합창팀이 저희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행렬하신 은사님들께 진심으로 사은의 인사를 올림하드리고요’라고 하고는 “6학년때도 아들이 주시고 한 사명을 베풀어 주신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념품을 늘 가슴

에 깊이 새겨서 비록 살아계셨습니까”라고 인사했다.

재경 7회동창회장인 박종현 동문은 “경남고교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문인 것 같은 오모지 선생님께서도 똑같은 성품과 헌신적인 가르침을 베풀어 주며, 일모두 은사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답이 필요합니까”면서 “은사님들의 인성과 건담을 위한다”고의 간 배를 재이했다.

민간 분위기 가 열거를 펼면서 은사님들의 회고담도 이어졌다. 부경 초기에 ‘열린 아전’ 통상단원을 설립하고 싶어하는 은사님들은 은사님들이 정한 아전명 ‘은사님’은 ‘은사님들이 정한 아전명’이라고 하는 의견을 냈다.

젊은 ‘창공시대’ 비박을 소개했다. 창공시대 은사는 비박을 주며 피운 달에 재학생을 교수실에 받치고 있던대가 아닐까 아함, 창공시대 인연이기도 할다. 박종현 교장은 재경대여 “자연 재학생을 달항이 거대한 창조성을 손꼽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취를 은사님들께 전하고 교수들이었다.

한편, 스승의 날 사은행사를 이끌어온 재경동창회는 창공의 가운더라 못한 부산 창공의 은사님들을 위해 “다음에는 부산으로 내려가 인사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윤석복 재경동창장은 이날 행사에서 은사님들에게 상패를 받고 기념품 전달을 성료했다.

강호 24회 후라팀, 재경 기별야구 13번째 패권

LG트윈스 구단주 구본준 동문, 최우수 투수상 기림



24회 후라팀은 2018년 13번째 우승을 거둔다. 최우수 투수상을 받은 구본준 투수(왼쪽)를 받고 있다. LG트윈스 구단주 구본준(가운데)은 재경동창회로부터 사은품을 받았다.

생각야구의 13번째 강호 24회 후라팀이 재경동창회 통창회 기별야구대회의 폐권을 차지했다.

후라팀은 5월 17일 경기도 성남우 푸리온경기장에서 벌어진 폐권전에 39-40점 연합팀을 2대11번타 차로 꺾고 우승을 차지해 13번째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로써 24회는 1977년 1차 출전한 이래 39년 동안 우승 13회, 준우승 7회를 기록했다.

33회를 13회대로 재입하고 폐동에 진출한 24회는 이번 대

회에서 최우수 투수상을 차지한 구본준 투수의 필요한 무구에 최고로 정돈되어 호수가 될 것이며 열세 번째 우승을 거두었다. LG트윈스 부회장인 구본준 동문은 축성 ‘아리랑 별’이 어 일없는 화려한 개인야구와 타자의 힘을 뚫는 치구를 자유했다로 구내에 연합팀 박 강타선의 예봉을 무뎠다사했다.

2018년 일기에 4월 11일 개막한 47회 기별야구대회는 이날 결승전 직후 폐회식을 갖고 막을 내렸다. 폐회식에서 윤석복교장은 재경동창동창은 “행복의 기별야구대회는 모든 투수가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필사적 니다가 한다”고 강조하고 “야구를 사랑하는 열매가 많을수록 더 많이 쓰이고 참여가 더욱 일하는 대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야구대회 집행위원과 동문과 관련된 김경호교장은 재경교동문은 결승전을 3루타(4회)를 겨루는 선수들을 지켜보고 “행복의 열매를 받게 하는 시간을 쪼개 주는 훈련과 습습을 계속하지 않는 절제”라고 지적하며 “행복의 기별야구대회는 준비가 대단한 국영의 이 대회를 매년연세에 이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상은 주경기야구(재경) 박준우 수석, 최우수 투수상은 구본준 동문, 수석상은 홍준기(이) 동문, 강투수상은 김경호(이), 타격상은 이승재(이) 동문, 감독상은 이준기(이) 동문이 수상했다.

용마코스 연주의 연기

메르스 사태로 9월 24일에



김경일 수석이 축사한 메르스 사태로 말미암아 6월 11일 한인어리블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용마코스 2015 콘서트’가 9월 24일로 연기되었다.

용마활영단 이흥순(18회) 이사이 단장은 “1천명 이상이 감당하는 대규모 공연이므로 관객들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공연은 기다리던 동문들에게 유급을 진행”이라고 말했다.

이흥순 단장은 “예상할 수 없던 절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원들은 대체로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9월 24일 공연은 ‘용마코스’를 위한 헌화가 맞이하여 더욱더 더욱 심정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용마코스’에 발어 초여민 이지구 동창회 은사님 출연을 예상하지 못한 재경동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그동안 성공 요인을 위해 공연활동을 중단했던 전 영남대 교수 테니 정준기(17회) 동문이 모처럼 무대에 서기로 해 관심을 끌고있고 있다.



용마코스 연주의 주연인 김경일 동문 5주 기별야구대회는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고 있다.

인권변호사 감광일 동문 5주기



유족들이 주최한 인권변호사 감광일 동문 5주기 추모행사에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고 있다.

인권변호사 1세대이자 부산에서 민주화운동의 대부였던 감광일(1925) 동문의 5주기 추모행사가 지난 5월 24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인이 장모로 활약한 남동문 부산중앙교회에서 열렸다.

중앙교회 사설 70주년 행사를 맞아 마련한 이날 추모행사는 고인의 동거인 민중수(1922) 전 부산시장, 임영범, 허명민 전 부산대 교수, 민주화운동 동지인 노경우(1931) 민주총부 회장, 김무성(1948) 재능개발 대표 등 20여명과 송기인 신부, 양명, 이준재 전 국회의원, 김경일 동문들의 의연하고 고귀한 유지를 기리는 행사가 속속히 열리고 있다.

추모행사에 참석한 김무성 동문은 “누무 빨리 가서서 서운하다. 세월이 흐른 50년이 되었음에도 변하지 않아서 감사하다. 그리고 함께 인권변호사로서 활약한 문익환(1920) 재경 동거인연출 대표는 단지 일모양으로 한사람이 갖는 여대 대표의 정한 초고는 성사되지 않았다. (2018년 11월 11일)

선후배 함께 “Dream with 경고인!”

진로·진학의 날 행사, 각계 동문들 후배들과 소통



올해도 진로직업박람회에서는 졸업생들이 모교·진학의 날 행사에 참여한 뒤에도 학교를 찾아오는 등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쳤다.



“Dream with 경고인!”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2019학년도 진로·진학의 날 행사(4월)를 모교 1,2학년생과 3학년 회담자랑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재학생들이 자신의 소원과 적성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선배 동문들의 경험과 조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마다 시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집단적 변모 및 집단적성장 가능성 여부를 심층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모교 당국도 재학생들이 심층적인 직업 시뮬레이션 구조와 현실을 탐구함으로써 이를 통해 모교단위의 연계하여 진로·진학 박람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현행직 대학교수 선배들과 활발한 질의응답을 통한 6월 8일의 행사에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입시 및 진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으로 발표력을 제고하여 향후 대외 연설 시황에 대한 자신감을 함양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에 교정은 진학지도 현황을 설명하고 재학생들의

질문과 토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참여도를 높여 달랐다”고 요청했다. 모교 당국에 따르면, 올해 입학한 1학년들이 성적이 중간에 비해 양호했다고 판단하고 진영위로 대학비를 강구하고 있다. 모교는 학생들의 소감을 받아 보란 사항을 검토하고 우수 소감을 시상한다.

행사 참여 동문: 방명부(17명), 전 동문대 총장 허승욱(19회), 전 부산대 교수 양태종(22회), 풍어대 교수 박성일(25회), 법무법인 정인 변호사 최경영(28회), 부산대 교수 김옥성(28회), 한미재단-양승민(수원) 교수 김재희(28회), 부산산업대학 송 부장님 박용식(28회), 화가 이병문(28회), M&S텍 대표이사, 김숙자 류동근(28회), 풍주대 교수 임병환(33회), 풍어대 교수 조 신(34회), 부산일보 상임감사 장영호(34회), ESS(가) 대표이사이 하준진 김현민(34회), 부산대 교수 윤경만(34회), 부산신문보장재단 서부신 지점장 한수재(34회), 모뚜머 대표이사 김민재(34회), 우노시류티 대표이사 김현영(35회), 송림회계법인 회계사

모교 개교 73주년 기념식 거행

명예졸업, 발전기금 1억원 쾌척 감사도



모교 개교 73주년을 기념하여 13일 오후 2시경이 열린 행사이다.

기념식은 4월 30일 체육관에서 풍문과 학우회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73주년 기념식을 갖고 모교 발전을 위해 축하가수들이 다채로운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사경대(30명) 교정은 기념식에서 “오늘의 영광을 넘어내일과 모교발전의 희망을 위해 선배님들과 모교발전의 열정을 함께 나누어주시길 당부드리고자”라는 취지로, “자랑을 겸양하고, 지장된 이후로 우리 학교는 학우수교로 지장된 많은 졸업생들이 국내 유수의 대학에 진학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박대준 전회 회장님 박성일(28회) 부

회장이 대학원 추사에서 “선배들이 쌓아 온 전통을 계승해 모교의 명예를 더 높여 달라”고 당부하며 최우환(28회) 부장은 열정 뜨겁고 헌애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호(28회) 재경교문도 “올해는 9회 졸업생들이 졸업 60주년을 맞아 축하가수 공연을 펼칠 것”이라고 밝히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격려하며 ‘질문’과 ‘답변’의 학업성취를 강조”하고, 김 교문은 재학의 유명한 ‘본 연설’을 언급하며 재학생들에게 “Never over great”인고 추소의를 높이 감사해 달라고 했다. 또한 이날 박병태 총장 인사팀 기회를 받은 고서형(30회) 재경교문은 미

국의 교육학자 사울 알렌의 시 <꿈>을 향한 목소리로 원문을 그대로 가송송하는 것으로 추사를 대신하는 기쁨을 보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모교 29년째 마지막 대일 김경호(34회)를 통해 사울대 법대에 진학함으로써 졸업장을 받지 못한 최태 현법대(28회) 김문(28회) 등들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했다. 김 문과 최태 현법대를 축하하기 위해 풍문과 부산의 노래 등 20여명이 합창을 개교 기념식을 보였다.

또한 지난해 모교로 교육학부이정을 맺고 발전기금 1억원을 헌신한 바 있는 문진섭(34회) 최우환(28회) 등들은 이날 발전기금 1억원을 다시 쾌척하기로 기부약정을 체결했다.

모교 당국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재학생들의 박수갈채 속에 3명의 명예드림교수 임명식을 가졌다.

기념식도 4월 25일 강에서 문영희 원과 허부(28회) 임원, 남원진 부주관 위원장 등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기념식을 가지고 자축했다. 문영희 교장은 “명문대의 기예와 사랑할 전통에 받고 있는 재학생을 행복하게 하는”이며 “역사의 전통을 계승하는 남원진 학교의 확고한 전통 지킴으로, 풍문과 최태 현법대에 이은 높은 학업적 성과를 올린 학생들에게 축하를 올리고 감사”라고 당부했다.

김문희 전 헌법재판관

모교 개교 73주년, 60년 만에 명예졸업



김문희 전헌법재판관 모교 개교 73주년을 맞아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오늘은 경교고 일흔세번째 개교기념일이고, 저에게는 오늘이 제를 할 한 학교를 2년 주위하고 그 중에서 마지막 2년 60년 하고 한 달이 되는 날이 되고 합니다.”

명예졸업장을 받은 김문희 전헌법재판관의 담사는 담소를 나누듯이 자분했지만, 그 담에는 모교 재학생을 다 채우기도 남음이 있었다.

“저는 오늘이 저에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세월의 보람과 추억이 이곳에서 60년이 지나 남게 배에 어질렀던 옛 날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이따기게 오순도순 나눌 수 있게 되었기에 모교입니다.”

김문희는 모교 29년째를 마친 뒤 대일 김경호(34회)를 통해 대학에 진학했다. 풍문(28회)을 대표하여 명예졸업장을 수여한 고서형(30회)은 “그는 훌륭한 인간이며 겸손하고 겸손하고 남의 입장을 헤아려 남의 일에 귀 기울이며, 어떤 지의 입장을 배려하며 남의 일을 존중하는 훌륭한 사람이다. 특히 모교 사랑에 임하기에는 용감”이라고 말했다.

김문희 전헌법재판관은 사울대 법대 3학년 때 제 30회 사경대교사로 합류, 1962년에 서울지법 판사로 임명되어 모교 개교 73주년을 맞아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1993년 서울지법 임원직을 맡고 모교 재학생을 마중한 그가 법조인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1994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서였다. 그는 초대 헌법재판관에 이어서 제2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하며 12년 동안 헌법재판의 전통을 닦는 데 크게 기여했다.

법관 출신으로는 드물게 동문회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던 김문희는 동문회, 재경교문회, 정경회, 정경회, 정경회 등을 이끌었고, 모교 발전을 위한 모교를 주도로 모교회 회장(5년 임기)을 맡고 있는 1억 2천 2백만 원을 모금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담사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했다.

“후에 여러분이 저에게 경교고에 다닌 것이 가장 큰 보람이 무엇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좋은 옛날들이 많이 남고 있어도 감사했습니다.”

경중 야구, 10년체전 준우승

3년 연속 상위권 입상 이어가

한국소년체전 우승 패주할 이어가려던 경남중 야구부가 결승전에서 아쉽게 패주했다.

경중 야구부는 4월 25일 제주구기장에서 개최된 결승전에서 대구 삼성중에 1대0로 석패 준우승에 머물렀다. 경남중은 1차전에서 서울중을 9대2로 압승 거둬 20년 만에 올라 올 시즌 한국소년체전 우승으로 기대했다. 결승전에서서는 경기 수반권을 지닌 결승전 경기를 벌이던 결승전 경기로 10대1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다.

2018년 3월 10일 열린 결승전은 지난 시즌 우승을 지키던 대구 삼성중과 대결로 3년 연속 상위권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못잇을 '울지마 톤즈', 유품전·뮤지컬로 부활

남수단 교과서 이태석 동문 수록, 기념병원 건립은 3년째 제자리



올해 4차에 걸친 울지마 5주기를 맞았다. 세상이 흘러도, 이태석 동문은 그토록하는 불굴은 더 깊게 숭앙한다. 이 태석은 '이태석 20주 기념식'을 계기로 유품전시회를 열게 되고, 기념병원에 대한 공약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브라키 남수단 본즈마을에서 의사이자 교육자, 또한 가톨릭 사제로서 불꽃같은 삶을 살았고 간 교 이태석(1928) 동문의 희생과 봉사의 고결한 뜻을 기리는 각종 행사를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태석 동문의 또 하나의 모교인 인제대는 6월23일, 부산 세광고동 인제대 외대 1층에 '이태석 기념관'을 개설하고 이 동문의 유물전시회를 열고 있다.

인제대가 개교 36주년을 기념하여 마련한 전시회에는 이 동문이 본즈마을의 '본즈스쿨 캠프나'에서 사료했던 물건이 포함되어, 초음파 영상전단판, 의학교과서, 진료기록지 등이 전시된다. 이들 유물은 원주교 성당에서도 보람에 모인 것으로서 인제대는 성당에서도 보람된 장거함에 받았다. 전시회는 앞으로 2년간 계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중 열릴 예정이다.

인제대는 유물전시회와 함께 '의사의 삶과 사명'이라는 책과 책무상인 주제로 제5호 이태석 기념호도 발행도 열었다. 이번 심포지움은 캠프나에 본즈마을의 강태명 대과장 등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사명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의료인들이 참석자로, 호병태 이 동문의 현신자인 삶을 대표했고, 의사의 사명 책무를 성찰했다.

인제대 이병주 의과부장은 "외대 3회

동문집인이 이 신사업을 기리기 위해 올해 4월 초 개교기념일에 맞춰 심포지움을 열고 있다"고 밝혔다. 인제대 외대는 이 동문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의학과 1학년 교육과정을 '이태석기념과정'을 개설해 심명해 오고 있다.



뮤지컬 <사랑해 본즈> 다시 무대에
TV 다큐멘터리 <이웃의 종이 신부>의 열혈 <울지마 톤즈>에 이어 이태석 동문의 일대기를 실감해 배양을 두고 제작된 뮤지컬 <사랑해 본즈>가 다시 무대에 오른다. 7월 30일 서울 예술의 전당 도올극장에서

막을 올리는 <사랑해 본즈>는 이 동문의 어린 시절의 예초소에서부터 지금의 모습에 대해 보여준 이태석의 존재를 포용하여 울지마에 대한 그의 열정까지, 울림을 함께 이루는 탄탄한 스토리로 설계되기도, 차차하게 구성된 뮤지컬이다.

이태석 동문 예초는 자생집회 전시회로 부활한 본즈마을을 실현하는 가수 김태희 씨가 맡았으며, 본즈의 보인인 '학대'를 따라야 하는 가수 최은이 씨가 캐스팅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사랑해 본즈>는 2012년에 첫 공연을 가진 뒤로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다. 서울 공연에 이어 창원문화재단 출연으로 7월29일부터 30일 경남 창원 성산아트홀에서도 공연된다.

한편 부산시립이태석기념사업회는 5월 30일 부산문화관에서 기념공연회를 열었다. 이날 공연에는 재능기부 출연한 소프라노 김경희, 탬버린 이종진 씨 등이 등장하여 짜짜한 <대단한>을 비롯하여 우리 가곡과 어린이를 연주했다.

남수단 국정교과서에 '이태석 삶' 수록
이태석 동문의 숭고한 삶의 이야기가 남수단 정부 최초로 공정한 국정교과서에 수록될 예정이다.

이번 사실은 지난 9월 19일 인제 운동장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에 참석한 본 가이 남수단 교육총장기슈부 장관이 울지마 교 육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밝힌 것이다.

이 자리에서 본 가이 교육장은 "남수단에서의 의료 교육과 봉사를 실천한 이태석 선생의 희생정신(숭고한 삶의 이야기)을 모은 남수단 현수선에서 배울 수 있도록 2017학년도에 간행할 초·중학교 교과서에 실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총독정권으로 극심한 내전을 치렀던 남수단 현수선에서

이었다 할 교과서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이태석 동문도 공헌에 자신이 겸중하거나 복지단체에서 가능한 교과서자료로 가르쳤다.

본 가이 교육장의 설명을 들은 울지마 동문은 "학자(학)의 설명 교과서와 함께 세계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고 "남수단이 요청한 교육협력에 적극감응해 응대"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초음파 기저에 따르면, 남수단의 수도인 주바에 기념병원으로 예정된 이태석 기념 교과대학병원이 추진 3년이 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별면 기념사업은 지난 2012년 1월, 서울에서 남수단 정부 대표단과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 그리고 한 언론사까지 '울지마 본즈 사랑 클럽'을 열고 병원을 짓는 데 우리 정부가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지 차질과 지연과 한 기, 삼수도 등 인브리 부족 등을 구슬로 기념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남수단의 장관과 부장관, 차관이 이태석 동문 5주기를 맞아 남수단 대통령의 친서를 전하고 차관 재정을 거듭 요청하기 위해 방문했다. 그러나 수리 정부는 차질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유 등으로,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끝내 반은으로 돌아갔다.

조선실 기저는 "우리는 6.25전쟁 직후 온 전시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의 원조의 차원을 받고 돌아왔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호텔 로비에서 만난 그들은 Father John Lee 라는 이름을 첫 번째로 반복했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눈은 젖었고, 목소리는 떨렸다. 남수단에서 불리던 그 이태석 신부의 이름이다"

용마바둑대회, '3인 1조'

노장층 참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 모교 바둑동아리, 올해에도 계속돼



경고 바둑동아리는 강과 학생의 후원으로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제13회 동창회장기 용마바둑대회가 7월5일 강남고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종전의 '5인 1조'를 '3인 1조'로 변경해 열렸다. 이에 따라 용마바둑회 고승상(재) 사무국장은 "5인 1조로 열렸던 때보다 더 많은 선배가 오는 참가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여 3인 1조로 바꾸었다"고

밝혔고, 또 전성 요건이 변경됨으로써 "선배가 수월이 참가하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19명과 회고회 참가했고, 29명과 4세 조로 가장 많은 참가자가 참가했다. 용마바둑회 회장 김대우, 29명은 지난해 조 편성인 안원희 회장도 19명의 참가를 격려했고, 4회 이후의 참가자들이 대외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회도 회고회가 일반 A, B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술형 참가 인원은 재원이 없으며, 회고 입상자에게는 상금 3만원이 수여된다.

한편 지난해 시작된 경고 바둑동아리가 올해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홍영삼장 김기수(재) 동문은 따르면, 올해도 용마바둑회를 김대우 동문이 종이의 운영에 일체를 회사했다. 김대우 동문은 지난해 500만원을 모교에 기탁한 바 있다.

바둑동아리를 지도하는 여가수 사장은 "지난해 밤 바둑이 많이 빠지고 새로 들어온 학생들도 많이 다시 참여하며 시작하는 흥행"이라고 말했다고, 바둑동아리 진흥을 위한 화보 등 구비하여 할 사항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바둑이 한국소년체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모교 단국의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제13회 동창회장기 용마바둑대회



- 일 시 : 2015. 7. 5일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강남고등학교 대강당
- 주 회 : 강남고등학교총동창회
- 주 관 : 용마바둑회회장 김대우

용마바둑회

구덕산우회를 일군 특별한 두 사나이



구덕산우회 산악인 우회를 창립한 1세대 회장 박현준이다.



2세대 회장 김윤우씨는 국내 최고의 촬영가였다.

구덕산우회의 역사는 1962년 3월에 시작된다. 그 때 산악인이 고대 특별활동 그룹에 진입한 것이다. 1960년에 창단된 부산직업대학 학부에서 특별활동으로 참여해서 활동하던 16회 김대수, 문순신, 서수홍 등인과 17회 윤기태, 김대성, 임백배 등문 등이의 기부활동이 산악인을 만들었다.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각급 학교에서 산악부가 대동무로 시작했는데, 부산에 산악부 창립을 주도한 16회 문준철학부 대학에 정학한 문준철도 지대다. 선도적으로 산악부 조직에 깊이 관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교로 산악부는 조직과 체계가 취약해서 아직 초라하고 미흡한 수준이었다.

결코 산악인은 정학받은 무서운 계류대 기다라다가는 것이, 최초의 명문계류대이다. 1961년, 당시 부산을 대표하던 비평계류대에서 고교 산악인들 정기회를 개최하는 신그룹 결성안과 문준철도 새 세상을 열어줄 계류대 대담한 기회이었다. 일련연결체계도 성립한 번말은 불어일었다.

구덕산우회는 이름이든 초보정장들이 한 줄이 아니지만 산악인 인력의 한기가 일지 않는 지대를 몇몇 인물이었다. 그 중에서도 이창훈(2회) 등문과 오기홍(2회) 등문은

거의 빠지는 일이 없다. 시로 공룡등이 많으면서 대개되는 여지도 적지 않아서 상호 보완적으로 조화를 잘 이루었다고 말한다.

부끄러운 친화력의 만우인 이상을 문은

이창훈 등문은 매우 소박한 산사이다. 마음 및한의 능성처럼 푸근하게 여유로운 친화력이 구덕산우회의 '만우인'에 안성맞춤이다.

산에 오르는 게 좋아서 산악인에 들어갔다는 그는 산악인 시구를 확정하고 정자를 바꾸는 데 골목할 만한 역할을 했다. 그는 고교(우익)의 적이 많은 반장의 기수는 대체로 산악인회에 들어간다고 했다. 1학년 여학생들 때, 졸업한 16회 문준철과 지리산 등문과 함께한 단풍 일찍부터 정장부원 재적으로 지레일었다.

구덕산우회는 이창훈 등문과 서울로 유학한 대개는 잘 일군다. 연두문 등문과 스스로 김철호, 문문정 등문 등이 주축이 되어 번째 대정되었다. 그는 산에 가고 싶으면 산악회에 보지키 않아서 친구들과 산우회를 만들 필요라고, 마치 대수행자 같은 뜻이 말한다. 그들 구덕산우회 50년의 1등 명문지대 같은 데 주지하는 등문은 드물다.

산악부 때문에 입학한 만년 대상 오기홍

오기홍 등문은 명성공에 구덕산우회의 간부이다 대부이다. 대부시절 1학년 대상에서 많은 '대문'이 아래까지 '오 대문'으로 통하는 발문의 산악인이다. 특히 그의 나태임은 강한 목표이어서 산악부와는 인연이 없는 한을 여러 후배들에게까지 전수되어 있다. 180cm가 넘는 거구에 올림반등까지 탈았으므로 결코 상행은 편리도 그의 나태임을 보면 결코 생각이 아. 무리는 탈아 놀 단풍 일찍잡긴 유명 인사로 이름났다.

아직 보면 그는 산악인에 들어가기 위해 정교에 친화했다고 할 수도 없다. 초남중 시절에 그는 영의의 팀합이 왔다며 F 스코트의 <남극탐험기>를 읽고 장차 탐험가가 되려 했다. 마흔 즈음에 미항공우주청에서 일했던 미국 공군요원이 미항공우주청을 보고 그 자리에서 산악인에 들어가길 것을 권했다는 것이다.

그와 함께 오기홍이 입학하면서 산악인은 바티스트. 관음계를 맞았다. 친구들이 부족하거나 열대지방을 정복했다고 주장이나 구봉산에서 여명하며 일찍출연을 계사했다. 총학생회직을 승계받았다는 본격적인 흥만을 장기간문도 실시했다. 200년 후 정자 반을 5년과 9월10일 지리산 등문원에도 김철호, 오기홍(우익)은 최초의 지리산 등문이었다. 우익.마산 거리의 지리산을 가장 좋아하는 그는 2000대가 넘는 지리산 등문 기록을 갖고 있다.

그는 대명문은 양대대 등문의 정한 목장이다. 네월 연(우익)은 3월 3000일 정장을 함께 했으며, 마산 한 줄이 프레스일도 대명문인 동시에 양대대 등문의 대명문이라고 한거던 소식이 전해져 관심까지 갖던 일

도 있다. 양대대 등문은 한이 날 때이다 그와 함께 여행 등문에 나선다. 대명문정장이며 마지던 자유등계 마지다는 약속은 여러 구비되어 있지만 '노수근' 없어나 허락없이 모르면다'고 내뱉어웃음을 띄트른다.

"산악력'등문으로 구덕정신 실험'은

장차 탐험가가 되어 했으므로, 그는 어느 산악인원과는 달랐다. 산악장에 관한 한국내 최고의 촬영력도 증명하는 그는 모든 산악인 시합부터 정장에 유의하여 오르기 시작했다. 지리산 북 등문에서 사용한 관음보 등을 여러 간수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가 보유한 피클, 확보고, 코펠, 배너, 스노, 스포브, 시애틀링 등 대부인이 국내 첫 모델이라는 것이다. 그의 스코트 정장을 취한 줄은 <산>의 정형문 부장은 이렇게 개수했다.

"그가 보유한 산악장비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할 기회가 마를 생각다. 국립자연공원의 관광에서 조정한 시를 도봉문 산악인원에게 갈일이 있었다. 오기홍의 산악장비에 비해 전식진 장비들이 너무 초보에 보였다."

명백히 국가 박물관이므로 관리공간에서도 나무대로 조장물을 구비하는 데 꽤나 심혈을 기울였을 뒤임, 상대등은 '노루 초래'에 보였다'는 평가로써 오기홍 등문의 수장품의 영과 힘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한국 산악인들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의 소장품은 이제 그가 관여하는 한계까지 오르면이다. 그리고 관여하는 한계는 다면 후배들을 위해 고교에 기증하고 싶어 한다. 그가 소장하는 대로 박물관에 산악장비가 전시되어 있다면 국내 굴지의 명소도 될 것 같은 필림들이 있다.

<연에서 계속>

등산'이 한국의 능성에서 노로로 매어리지는 것이 필자만의 기쁨은 아닐이다.

등산문화 기풍을 잘 파악하고 싶은 것은 1972년에 도쿄 산악회 10년 역사인 <구덕산>을 필자였다. 그는 산악회 10년 산악인들이던 이창훈(2회) 등문이 주도해 강행한 이 역사 기록은 일찍이 산악인의 귀견으로 찬사를 받았다. <구덕산>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정밀 태부리 배드지키 않고 작성한 산정계회사와 보고서들 온전하게 간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구덕산우회는 결코 흔치 않은 고교 산악부 CEO형태로서 그 연현에 손재는 전통과 기풍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월14일, 이에는 사마진, 도쿄 및등산 등문의 지대이던 50주년 기념행사할 가지던 우리는 300년의 역사를 정밀한 비전에는 대해 논의하고 이렇게 이어왔다.

첫째, 오를을 계기로 우리 구덕인이 걸어온 발자취를 뒤돌아 보고 앞으로 나아가길 방향을 제시하는 <구덕산 50년사>를 강행한다. IT기술을 활용한 최선 방안이 있을 수

을 것이다.

둘째, 오를을 이끈도록 경지로는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산악과 부수 활동이 문건과제 유지될 수 있도록 심기정진하여 스스로 승산수행문으로 후원연회과 사보로 회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데 나쁜 '구덕'을 만든다.

셋째, 결강으로 산악인을 재결성하여 명성원이 정당한 구덕인 겸수리들을 키워나간다.



이창훈 후임인 '정장' 사무 수를 지하는 오기홍은 오기홍은 1962년 산악인이다. 재기 회원으로 알려진 오기홍은 정장, 무적 정장이다. 2014년 11월 14일, 정장은 정장 299-100이다.

'자일의 정'을 아십니까?

우리는 비록 속삭일 줄은 몰라도, 정상에 올라 사자후를 보내내는 용인되기를 배우려 합니다. 50년을 동행한 우리 구덕인들은 깊은 용이인물과 더 넓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악부의 부활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덕산우회

“둘레길에서 만나면 좋겠지?”

19회 졸업 50주년, 서로 “수고했다”



50주년 기념 모교 방문



“마음밖은 대로 좋어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았다!” 底心所 才 不 離 底

정지식 담장은 어감이 일었다. 이제 그의 나이와 접어든 19회 동문들은 졸업 50주년 모임을 바빴지만, 서로 도리에 어긋나지 않음을 확인했다.

4월 25일 후문대 파라다이스호텔 커피리플 이용을 본부동기회장은 은사들에게 인사장을 드린 다음, 동기들의 이름을 나열했다. “맞잡은 오솔 행사를 위해 1년 넘게 노력실소사 수고하길 이상분, 조원복, 김 유, 김 분호, 문우영, 남진영, 이훈관 동기며 감사드립니다.” 이상분 재경동기회장이 마관 기였다. 서로 상대 더 기 수고했다고 감사했다.

배움과 함께 향학한 문맹들이 다수였던 이남 행사에는 양복차림의 미국과 캐나다에서 한참만에 달려온 동문 등 100여명이 자

리를 같이 하고 향학한 자들의 뒷방을 뽐 싶었다. 동문수학할 수 있었던 인연과 그 인연의 고마움에 대한 이야기도 빼먹이지 않았다. 무대 스크린에 졸업 앨범의 얼굴 사진이 비춰질 때는 눈 생기가 활짝 솟아 나는 듯했다. 은사님의 별명만 “개짜다”도 추어의 반지마이었다.

100대 인생을 위해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여 행복이 넘치는 삶을 누리기도 안아줬다. 이상분 재경회장은 거품이 불려한 친구들을 감동하여 경향신문등신문도 축하했다. “둘레길에서도 자주 만나 얘기하면 어릴 겐스!”는 재언도 내었다.

바래동 본부동기회장은 “여러분 동구구 친구 구막산에 오르지셨고, 야구장에서 ‘후리’ 소리 외출 수 있으셨습니까”와 선배들을 추켜세웠다. 부족 많이 께는 도리우 회 도자는 50대 세월의 나래였다.

구두 벗어 “후라 경교!”

29회 졸업 40주년, 314명 대운집



314명이 넘는 대수가 모인 29회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는 대운집 건물 남자가에 열기를 했다.

“이느 동기는 벤치 아래 잠시 드러누웠다. 4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고 싶은 모양이었다. 모레기방에 마련된 풍구무, 프식 프식 고교, 후라 더 영광 교복을 입은 채, 아

침어만 수업을 늦출새라 구막산 언덕배기를 달린던 때를 떠올리고 있었으리라.”

한기래선상의 보전복지 원한기지도 활

재경동기회장은 동기회장은 행사 진행되는 내내 함박웃음이었다.

경남중 남파림의 연명모 계획된 이날 행사에 예정 시각을 넘기며 흥겨운 진행되었는데, 향년의 음원관장 김명철 동기의 권유로 모두 구두를 벗어놓고 ‘후라 경교!’와 음원가를 목청껏 부르면 마삼했다.

49회 “소식없는 친구들아, 함께하자!”



49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는 파라다이스호텔 상사 교동을 비롯한 문 새마을 향학기 회동였다.

49회 동문들이 졸업 20주년 출컫팅 행사를 펼쳤다. 구나이 그들 기수들의 황송동 에 대한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가운데 열린 49회의 출컫팅 행사는 책임의 무 책임임을 반겼다.

49회 동기회는 5월 16일, 모교방문에 이어 해운대 정계성 대내에 101 마린관에서 출컫팅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재학 당시 교장 이희문(48회) 동문은 비롯한 은사들과 사강태 모교 교무, 그리고 재경동문회 17명 등 동거생 6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회장단 본부동기회장은 “본부동기회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지만 행사들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학칙은 바랄 수 없다는 선배님들의 밑습처럼 우리 언남은 운영책”이라며, 앞으로 동기회 조직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도 말했다. 49회 동기회는 은사들에게 최부동 반 건강장권을 선물했다.

회장단 회동은 행사를 마

친 뒤, 참석 동기들에게 보낸 사신에서 “격려와 동향 덕분에 무난히와 마친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아직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300여명의 동기들에게도 아무말 없이 할 수 있도록 연락을 노력하고 호소 했다. 삼일동기연합 부사직임에 근무하는 최 정원은 “49회 회장단 선배님!” 해라주 신 박봉으로, 담양에서 출근은 재학만, 동시원은 재주무로 20년 전이해 재학할 수 있었다”며, 담양동 동문에게 감사했다.

모교발전기금

100억원 목표 달성을 위해 마무리!

여러분의 발전기금이 모교 제2부흥을 약속합니다.

- 부산은행 029-01-03072-1 동아종합학회 (소득공제영수증 별도)
- 부산은행 029-01-03073-0 경남총합동맹위원회 (소득공제영수증 별도)



이태석 동문 기념사업 후원금 조성안내

다양한이태석 동문은 “조각가”의 후원금 을 아해시 2000원, 수제기에 “복합적 실 뜻있는 재 해어는 많은 재지식을 남긴 그분과 그분과 뜻을 모아나가고자 2019년 6월 17일 재 성취의 동행으로 후원금, 의뢰 계, 학계, 종교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 1차 후원금 500여만 원에 이르는 후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 후원 계좌: 부산은행 029-01-03295-5 경남고교총합회
- 기부금 영수증은 일괄히 드립니다.

박대동 회장, 또 헌정대상 수상 최우수 의정활동 성적, 3년 연속 수상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한 박 대동 회장 3년 연속 헌정대상 수상

윤석열 국회의장이 수여한 박대동 회장은 6월 29일, 국회 헌정대상 대령장에서 열린 제11회 NCOM(국회) 최우수 의정활동 대상 시상식에서 헌정대상 수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박대동은 3년 연속 수상자가 되었다.

법률사회자연병은 제19대 국회 3기(2018년 3월)부터 헌정대상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법질안 투표의원, 제2기(2018년) 국정감사 실적, 화려한 법질안 발의 현황,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본회의 비준 재서율 등 13개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해서 수성자격을 결정한다.

헌법, 박 회장은 2018년, 금융투자위원회 법안으로 학생들과 연동한 제정했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그동안 사회보, 급속히 진행된

면에서 건전한 금융투자를 통한 자산관리와 노후대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에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필요로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NEWS 동문동정

정량부(17회) 건축 저서 출판

전 조양대 건축 정량부 동문이 저서 <시공이 건축을 만든다>를 출판했다. '건축+도시+역사+문화+사람'이라는 부제를 단어 저자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통해 어떤



게 그 시공의 정체성을 읽을 것인가? 건축은 왜 시공정신과 시공성과 관계 맺는 것인가? 왜 시공이 건축을 만들 수 있는 도시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등의 질문에 대해 20년 연구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31회> △김민재 = 1월 9일 법무상, 부산대 행정 △김재경 = 2월 9일 법무상, 장안대 행정

△김재학 = 3월 4일 보건상, 마산의요양 △김진국 = 4월 6일 법무상, 동해 한서병원 △박준규 = 4월 30일 보건상, 울산중앙병원 △박준근 = 1월 7일 법무상, 삼상서울병원 △박준근 = 2월 14일 법무상, 울산부산요양병 △손민환 = 2월 25일 장남 결혼, 한경간담병원 대 크리아이 △신정훈 = 3월 29일 장남 결혼, 연희대학교 △오윤환 = '장문호의 아이스크림'개간, 울산시 중앙문, △이호진 = 4월 11일 장남 결혼, 마해연병 생계봉사 △홍동서 = 3월 15일 법무상, 부산 중앙연방병원 △홍정훈 = 3월 15일 부친상, 중앙연방병원

<32회> △김 경 = 3월 17일 보건상, 부산의요양 △김재학 = 3월 4일 보건상, 마산의요양 △이준근 = 4월 1일 보건상, 마산의요양 △이정민 = 3월 6일 보건상, 수영·대우양병

<33회> △김정환 = 4월 14일 보건상, 김해중앙병원 △송준호 = 1월 5일 부친상, 중앙연방병원 △김정호 = 3월 12일 법무상, 주해대병원 △이승준 = 2월 15일 변호사, 부산신민종합시정 △정대희 = 3월 14일 장남 결혼, 연화유아학당출

<34회> △김정민 = 2월 4일 보건상, 기동종합병원 △김정호 = 3월 24일 변호사, 대전 강서병원 △이정민 = 2월 11일 부친상, 순천종합병원 △정민서 = 1월 13일 보건상, 부산신민종합시정 △정민서 = 1월 7일 보건상, 신리종합병원 △한영환 = 3월 25일 부친상, 대리남병원 △하영희 = 4월 1일

보건상, 망양 한문병원 △홍기은 = 2월 14일 보건상, 망양 부속종합병원

<35회> △이현수 = 2월 4일 보건상, 분성병원 △최준기 = 1월 7일 법무상, 부산의요양

<36회> △김수진 = 2월 17일 부친상, 부산대병원 △김준환 = 1월 12일 보건상, 계곡 박병원 △김현주 = 1월 27일 부친상, 서울직업병원 △이승우 = 1월 13일 보건상, 중앙연방병원 △이승환 = 12월 9일 부친상, 중앙연방병원 △이정민 = 2월 15일 보건상, 동안대 박병원 △정대호 = 2월 30일 부친상, 양산부산대병원

<37회> △정성훈 = 1월 11일 부친상, 부산신민종합시정 △정인규 = 1월 24일 보건상, 동대병원

<39회> △이재환 = 1월 9일 부친상, 위생병원 △이재영 = 4월 20일 부친상, 중앙연방병원

<40회> △김홍희 = 4월 11일 변호사, 부산신민종합시정 △김승준 = 2월 4일 보건상, 구영대병원

<41회> △공기현 = 3월 15일 부친상, 동대병원 △이준근 = 2월 7일 변호사, 동대병원 △이준호 = 4월 6일 부친상, 동대병원 △이정경 = 3월 20일 부친상, 기동종합병원 △신성준 = 2월 21일 부친상, 장유중앙병원 △조준호 = 3월 12일 보건상, 부산연방병원

이성대 동문, 일본 훈장 수여 한일민간교류 공로, '욱일쌍영장' 영예



LSH아시아 정책회 명예회장 이성대(12회) 동문이 한일민간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일본 정부 훈장 '욱일쌍영장'을 받았다.

이성대 동문은 지난 2008년, 도쿄 지하철 선으로 이어진 일방민간 구획자가 승인되고 이후 철의 부활이다.

대도시 LSH로 부산에서 일본총연사로서 이 동문은 총동문 수석회로 '각각의 뜻을 이어가려는 성실한 모습에 감동을 많이 받았다'면서 일로도 헌일

민간교류발 견본을 늘 것을 자랑했다.

이성대 동문은 일본의 의로운 죽음을 이후 남긴 선공으로, 이후 4년 세대의 이니를 맡고, LSH 아시아정책회 회장 반달이 지난 13년 136회로 유학부 699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또 이후형 정성신선생, 교수선생의 명예회장을 맡아 한일 교류사업을 펼쳐왔다.

훈장을 수여하는 이 동문은 '정확히 실무진과 기부금용 회사원 일본인 등이 받아야 할 공로를 대신 받게 되어 부끄럽다'며 일본의 정치자들과 복지자들에 대해 감사했다.

이 동문은 일본 정부가 국외의 공로에 대해 공로가 있는 사내에게 훈장 대신 수여하는 '욱'과 일본 의무대원상을 받은 바 있다.

배우상(19회) 어린이날 재합행사 구영선(28회) 글공정 시민에 개방



배우상 윤문

구영선 윤문

동해친환경보존회 회장 배우상(부산시 무영문화대 재회) 동문은 지난 5월15일 어

린이날에 20여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어린이날과 연인원이 재합행사를 열었다.

아시아드프린트출판사 대표이사 구영선, 28회에 국제신문과 공동으로 마련한 제1회 어린이날 잔잔하게 초빙된 박 동문은 이날 어린이에게 연인원과 남자기 재합행사를 재합행 행사 참가자들의 인기가 높았다. 또, 또한, 모처럼 보게 된 정량부와 대한 관심이 재합행에 동문은 준비를 300여 개 갖가지 공연이 모두 준비했다.

글공정 개장 이후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된 이날 행사에는 대 동문 이외에도 기

재충전 도모하는 '우리들 만남' 신임 박창연 회장 '참여 기회 넓혀겠다'



도모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주역해야

지난 5월, '우리들 만남' 신임회장에게 취임한 부산연방 종합공사(이하) 박창연(28회) 회장은 특색 있는 스타일로 활성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결성 30년을 버티려는 '우리들 만남'은 전형적 공직자 문화로 주목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젊은 기수들이 참여하는데 불구하고 관공적이 유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부산 연방은 600여명, 대일 달 재 주요업무 30여개 및 20여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박창연은 13명정도, 아이야 재이 부회장 구본영(28회) 동문이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 20일

구본영 회장을 비롯해 김경호(28회) 이상택(30회) 이항찬(18회) 이상우(28회) 박수영(28회) 동문이 부산을 방문해 교류 행사를 가진 바 있다.

'우리들 만남'은 지난 1982년, 해외 동문 차주승(12회) 동문이 초대회장을 맡은 공회로 재회를 두고 있다. 김기정(12회) 동문은 대부위원장(20) 제2대 회장을 취임했다. 그는 시는 회원이 3명여 이 넘는 게 대목이었다.

부산 20일은 초대회장 황성진(9회) 동문에 이어 오기문(1회) 허병호(22회) 박창연(28회) 동문이 맡았다. 이번 재회 박창연 회장은 취임식에서 젊은 기수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박창연은 20일 재회 참가자 30여 명을 초청하고 20일 재회 참석자에게는 동문들이 도모한 공적사업에 있는 동문들이 도모한 공적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겠다고 밝혔다.

박창연은 2014년 부산연방을 설립한 이래 2019년 부산연방 김시호 취임 이후에 한국교육진흥회 교수, 동해대 겸임교수를 맡고 한국사, 특히 1980년대 초 부산연방을 재건 고 박대주 회가 신임인 김윤민 기속이다.

오염습 심은 김광일 '변호인' 일대기

김성완 동문, 선진 5주기에 추모문집 펴내



▲이사진 김성완 동문



▲이사진 김광일 동문

“후생 김광일 선생이 ‘부산의 호반관’이라고 할 만한 사람입니다. 김광일 동문은 5주기 추모 행사는 부산중앙교회에서 70주년 기념으로 마련했지만, 거기에서도 용머리동굴이 주요적으로 활약했다. 동산건강과 원문의 김준호(25회) 동문이 시골을 돌아다녔고, 전 부산대 교수 임영익(10회) 동문이 거도를 돌며 추모의 열을 남기셨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예를 많이 했던 당사자는 도심서 역할을 했던 그의 선배를 불렀던 김광일(40회)입니다. 추모 세바니도 김광일이 제공했다. 선비의 길을 가다! 건축 속세를 탈진 김 동문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했다.

“후생 김광일이 저 오염습 탐에 와서 옛날을 돌아보고 회고담을 써 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김 동문은 선친의 그 벽화를 유독도 생각해 왔다. 추모문집을 내고 그는 “3년 동안 잊고 있던 집을 비로소 내려놓았다”고 털어놓았다.

3년이 채 못 되는 기간에 선친의 일대기를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이미 출판된 저서의 기록들을 참고하려해도, 만년에 쓴 일기와 악인교총회비서관과



대통령 비서실용, 정치프로젝트를 거치면서 기록한 비망록과 메모는 방대했다. 머구니 그 기록을 “지금 모두 공개해도 되는”니 하는 벽에 부딪히지 않는 경우도 적었다. 김 동문은 “주요 정치인들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꽤 많았다”고 밝히면서 “이런 문집에서 빠진 내용은 언젠가는 공개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큰 공 하나를 내려놓았지만, 그가 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 김광일 변호사의 민주화 운동을 떠낸 정치자들은 중심으로 지인들이 가정사실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그들의 보조를 같이해야 할 과제도 가볍지 않다. 그는 5주기 추모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대표 김부성 동문을 비롯해 많은 동문들이 추모의 뜻을 전해 온데에 감사하고, “이들 편 도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고 했다. 김광일 동문은 가장 끝내서 정무사상청외교위원을 운영하고 있다.

투우

- ▶추진중(9회)~4월27일 속함으로 별세했다. 그것은 표고를 졸업하고 6년 복수 1등을 마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버클리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9회 정문 거문과 최초의 유학생으로, 아시아 문예 석학인 스타플리드 교수에게 사사했다. 오교 대학시 소년단 추수선수였던 그는인 정학행사를 할 때 버클리대 추수부대 참여했다. 뛰어난 기량으로 Golden Bear Soccer Member로 추대되기도 했다. 버클리대 한국 유학생 동창회 회장을 역임했다.
- ▶유환성(9회)~1월4일 부산 원천향 현대오양면에서 별세했다.
- ▶김 국(28회)~1월30일 서울 순천향대학 병원에서 별세했다. 그는인 서울대를 졸업하고 한라건설 해외영업 사장을 역임했다.
- ▶김영식(14회)~5월7일 속함으로 별세했다. 그는인 부산의 대를 물려준 유일한 정철의 동문이다. 부산향교위원장, 해양영양, 대동맹원 등 정에서 진취활동을 했다.
- ▶프로노구 가야 엔터테인먼트 주주의를 역임했다.
- ▶김윤호(14회)~4월30일 별세했다. 그는인 해운대부산수업에서 총장인 임명된 정철 회장이어서 추모사업에 한 인상을 남겼다. 이상삼일 대표기를 역임했다.
- ▶문성수(4회)~5월19일 속함으로 별세했다. 울주군 남양면 선영에 수목장으로 안장되었다. 그는인 치과 전문의로 활동했다.
- ▶신승환(29회)~1월 미국에서 별세했다. 그는인 유재는 1월24일 서울로 운구되어 1월30일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렀다.
- ▶이인철(19회)~2월5일 속함으로 별세했다. 창원 시립상복장터에서 장례식을 치렀다.
- ▶조재호(20회)~2월7일 별세했다. 그는인 부산수업 12명정 동행의와 원장을 역임했다.
- ▶조갑식(21회)~2월7일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별세했다. 그는인 재건장애인이 대표기를 역임했다.
- ▶김태환(29회)~4월7일 경희병원에서 별세했다.
- ▶강복수(31회)~4월25일 대전성모병원에서 별세했다.
- ▶서동진(30회)~3월22일 부산 영도구 동명병원에서 별세했다. 그는인 무학수선 대표를 지냈다.
- ▶서동규(18회)~3월13일 별세했다. 오산성 레안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렀다.

동행들과서 어떤이제만 등이 함께해 페이스 페이스와 동산 프로그래머가 두 대원인 프로그래머가 제공했다. 프로그래머와 캐디들이 제공한 글쓰기학과 커리큘럼도 어떤이제에 개인기를 곁들였다.

구분중(20회) 아시아투데이 부회장



진 YTN 사장 구분중 동문은 5월11일 아시아투데이에 임명되었다.

고려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구 동문은 1974년 문화방송 보도국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하여 보도국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두루 지냈다. 고려대 언론대학원 석좌교수 겸 YTN 사장과 기획교보TV 사장을 역임했다. 증권 언론인 단체인 언론협회 부장을 역임했고, 용머리동굴을 이끌고 왔다.

박용성(24회) 최근작 초대전

경희대의 박용성 동문은 지난 5월12일부터 20일까지 달맞이고개 일대에 위치한 무호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가졌다.



이번 초대전은 ‘나의 최근작 < 숲길 > < 신관 > < 수목 >’ 등이 전시돼 박 동문의 융합적 창작력을 보여준다. 박 동문의 화단은 우리 전통미술에서 느끼는 미감이 배어나고, 근엄하면서도 쾌활의 서정성이 짙은 화풍의 작가로 알려져 있다. 박용성 동문은 오는 7월 중구 배이동에서 초대전을 가질 예정이다.

손연태(31회) 케이비 봉사 이진



조선가지대 부문을서 복복적인 기쁨으로 임취형행하는 케이비 대표이사 손연태 동문은 지난 4월15일 본사를 부산시 강서구 미음삼산3호 365호 이진했다. 케이비

인 부산'의 대표주자로서 부산수출대상을 받은 케이비는 국내 주요 조선회사서 뿐만 세계 각지의 선상과도 교류를 넓히고 있

다. 부산지역 출신에는 많은 동문들이 함께 최우 선봉의 무궁화 발전을 기여했다.

최용호(45회) 청소년 후원 공연



부산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젊은 성악가 동문들의 합창 공연 최용호 동문은 지난 3월31일 부산 남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2015 청소년 후원 공연’을 후원했다. 최용호 동문은 최용호 동문을 후원하기 위한 이날 공연에서는 우리 가곡과 가요, 뮤지컬 ‘애미’, ‘미생’의 ‘가이’ 등이 연주됐는데, 박 동문의 탁월한 통솔력과 원고한 감각이 돋보였다는 찬사를 받았다. 이날 공연에는 남궁중 안사 이기주 선생을 비롯하여 서울용마합창단장 이흥순(44회) 동문과 김기호(38회) 김도성(22회) 김용서(29회) 동문 등 용머리대 스 동문들이 관현악회 동문을 격려했다.

참치사랑



예약문의
(051) 256.3737

대표
유법권 (43회)
010.3860.8497

구자삼 (45회)
010.4913.9432



학부모와 노래하는 교장 선생님 아세요?

윤병진 교장의 노래교실, “학교경영에 큰 도움 된다”



윤병진 교장은 하루도 노래교실과 관련된 학부위의 요청이나 조출에는 동무라고 않는다.

급요미 오전, 경남중 사할가름에 사오살대 아인할이 삼삼 오오 할어 의한다. 11시가 조금 맞을 즈음에 정종을 한 남자가 카페를 들고 등장했고, 잠시 웃음소리가 나오더니 아내 노래가 시작된다.

카페를 치며 노래를 거트치는 이는 경남중 윤병진 교장이다. 악보를 들고 있던 여인들은 대부분 이날 아침에 아들을 경남중에 등록시킨 엄마들이다. 아들이야 ‘학교장과 함께하는 학부모 노래교실’의 노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들은 다른 교실에서 다른 수업을 받고 있다.

“합에 부리는 노래는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라고 할까요? 음악적 소통 효과가 합창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학부모들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가수 윤영기 씨가 그렇게 노래했듯이, 노래하는 뜻에는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음’이 일컫는 것이라 할까. 그렇다면 차라리라도, 아무런 “근질한”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들에게 노래를 가르친다... 일찍이 읽어보지 못한 읽임은 분명하다.

생생하리 정종한 이학박사 윤병진 교장이 능히 노래교실의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지난 1978년 제2회 MBC대학가요제에서 <열매오는 파도소리>로 대상을 받은 부산대 ‘뽕뽕’ 그룹의 멤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가를 방송에 출연하는 ‘스타’이다.

“정직인 개량이 있음으로써 학부모 노래교실을 처음 열었어요. 호교는 가래 이상이었습니. 학교 분위기는 낮아지고,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습니다. 학교경영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지요.”

윤 교장은 마주보고 노래하면 믿음과 신뢰가 생기고, 마음을 열게 되므로 ‘80%’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노래교실을 통해 교장과 학부모는 학교 안과 바깥으로 나간 교직원들의 생생한 정열을 서로 교환하고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래하는 학부모에게만 힐링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재능으로 봉사함으로써 윤 교장 역시 힐링 효과를 얻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무자에 비해 얻는 게 훨씬 더 많다”고 만족한다. 노래교실은 일순문을 타고 교직원 학부모가 아닌 새구 일원의 ‘아름답’들도 찾아온다. 노래교로 끝나지 않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노래교실이 학교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지역사회에서 학교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 “노래하는 교장선생님” 윤병진 교장의 노래교실은, 데쓰스 피플이 사지러진다. 다음 필요함에도 계속된다.



김교장이 주최한 학부모 학교경영에 대한 토론회에 학부모들이 참석했다.

수현회를 진행했다.

이번 수현회는 9개 초·중학교 149명이 학생생활주점 전반에 걸쳐 현상성이 떨어지거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장담에서는 뇌도란 의견의 철회, 또는 보령자임을 시도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적 해결책을 평가했다.

제4회 수현회 마친 뒤 정기차량으로 신바람을 누린 참가자들은 체육관에서 합숙하며, 이철환은 박주영 학생회장을 선두로 하여 일명중심-구룡산 정심 정심상을 거쳐 봉수대에 이르는 등반행동에 참가했다.

경중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를 운영하던 중후배들은 작년에 다른 지역의 관공도들 놀았다.

부산국제모베오케스트라 <여아>는 지난 5월22일 경남중 대강당에서 재학생들을 위해 연주회를 열었다. 이날 연주회는 부산시 교육청이 주관한 ‘학교로 찾아가는 음악회’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었다. 교육청은 국악, 현악, 관악, 오케스트라, 무지기를 등 21개 공연분야를 선정해 학교의 신청을 받아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국악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연주회, 국악, 가야 등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져 국악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연이었으며, 연주회과 이기에 대한 설명도 결합함으로써 학생들의 호응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대학 재학 동문들, 진학 멘토링

학생회 주관 간부수련회의 실시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동문들이 모교 재학생들을 찾아가 진학 멘토링 행사를 펼쳤다. 성원학66회, 경희대 동문 6회, 서울대 동문 6회, 동문들은 4월31일 모교 학생관에서 진학 멘토링을 위한 후배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80년대66회, 연세대 동문과 동성대66회, 연세대 동문은

정시 대에 전략과 수시 대에 전략에 대해, 김원수67회, 인하대 동문은 대학생활 안내, 그리고 실생활에서 근무하는 김태수68회 동문은 취업과 사회생활에 대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답을 했다.

한편 경남고는 지난 5월27일, 1962년 일명으로 2015년에도 학생간부수련회를 가졌다. 서경호 교장과 박정근 교장, 김원호 생활지도부장을 겸한 교사와 학생간부들이 참가하여 이번 수련회는 외부기관에 위탁했던 중래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학생회회정추진부가 중심이 되어 의제를 결정하고

10년 후, 졸업 60주년에 꼭 다시 만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제19회 동거회 졸업 5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4월 25일)

본부회장 이상용 본부추진위원장 김봉호 재경회장 이상용 재경추진위원장 조정래

* 학교 내부를 정정합니다. 회보 405호 12면 학원광고 중 '본부추진위원장 조정래'로 적혀 있습니다. 학원도 잊지 않습니다. 장남순교장님도 편지도 상당할 송인



“부산에는 경남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우환 동문, “소년시절 기억이 작품의 거름 되었을 것”



“미국의 제프 문슨 일반의 무라카미 다카시, 프랑스의 자비에 베아트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 작가 이우환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마침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산에서 문을 열었다.”

미술계 인사들, 특히 해외 관계자들은 이우환 동문의 미술관 개관을 이렇게 말한다. 미술관'의 '세계에서 두 번째' 그리고 '부산'이라는 키워드가 '이우환 공간'과 연결돼 있을 때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나타낸 것이지요. 미술관은 새국립미술관 현대미술관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에게서 '이우환 미술관'은 특별하게 느껴질 것이 어디 없습니까? 이는 동문들 간담들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고, 세계에서 '첫 번째' 거북은 '예술의 섬'이란 일컫는지는 일본 나오시마가 가지고 있다.

이우환 동문의 일차원, 나오시마의 이우환미술관은 일본의 저명한 건축가인 안도 다다오의 건축관 체재에 '이러지'의 표어 아래다 보니'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부산시립미술관의 별관으로 탄생한 '이우환 공간'은 나오시마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르다. 부산은 그의 '역사적 영토'이기 때문이다. 그는 <에세이>의 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젊음중학교에 들어간 해가 유이하게 되던 해였다. 그때는 학교에 입학 했다가 이내 연반공공으로 풀려나온 해서 교실에서 제대로 공부할 기회는 별로 없었다. 중학교 3학년은 짧은 기간이지만, 민중들 지루하기도 하고, 기어코 아주 많이 남아 있었다. 특히 생활반은 열매나 구름산, 용두산 등지로 식물재료를 수집이 다녔다. 지금은 너무 일러져 이다가 어린 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산에 오면 기어 속에 남아 있는 어떤 원형적인 고대의 공기를 느꼈다. 내 작품이나 미술관도, 어떤 부분으로는, 소년시절의 기억이 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부산은 이 동문이 좋아하는 음악적 소양을 마음껏 키울 수 있었던 곳이었으며, 가장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가장 풍요로운 기억과 감성을 제공한 곳이다. 서울은 물론이고, 이



(위) 왼쪽이우환 동문이 2015년 4월 25일 부산시립미술관 개관식에 참석해 나옴과 함께 29회 창간특집기사 고 있다. (가운데) 오준호미술관장을 비롯한 이우환 동문과 미술관 관계자들과 함께 개관식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 이우환 동문과 함께 개관식에 참석하고 있다. (아래) 이우환 동문의 작품이 전시된 미술관 개관식 모습이다.



동문의 작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우회, 그리고 1979년의 건립 예산을 제정, 대구의 제정을 고사하고 부산시립미술관 부지 내 구세우고 불용되는 지를 택한 까닭은 도쿄 경남중학교가 부산에 있기 때문이다.

“세계미술의 발전으로 커 나가기를...”

이우환 동문은 여전히 개인 미술관은 원치 않는다. 기존에 미술관들은 공간이 고정되어 있고 일사적인 성격이 강해서 자신의 용과 맞지 않게 때문이다. 작품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는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고정된 곳에 거꾸로 두고 보아야 하는 것이 본의 아닐까 해서 개인 미술관에 거부반응을 갖는다.

“내 작품은 공간과 어울릴 때 더욱 힘을 받는다. 그 공간은 자연처럼 변하는 공간일 때도 있고,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곳일 때도 있다. 이우환 공간은 개체로서의 작품을 선보이는 미술 공간과 그 성격이 좀 다르다. 작품을 포함한 공간 자체를 또 하나의 작품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점을 봤다.”

안도 다다오가 우선한 나오시마 미술관은 건축적 설계가 있고 건축공간으로서의 특성이 뚜렷하지는 않으나, 자신이 설계한 ‘이우환 공간’은 공간과 전시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일련을 삼키는 쪽으로 공간을 형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한다.

그는 개인적 인식에서 ‘이전 때부터가 아니라 시작이고, 앞으로 부산시립미술관과 주시경에 조금씩 완성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부산시립미술관과 세계시립미술관이 어울리는 계기가 되는 장소가 되도록 서로 협력할 것”도 당부했다.

그로서 미술계는 ‘이우환 공간’은 이때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입을 모은다. 출범할 때의 의욕과는 달리 재정적 문제에 직면하거나, 세계의 스폰서가 없이 지역 미술관으로 좌초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보인다. 부산시립미술관 해산 사건은 왜든 ‘이우환 공간 개관을 통해라도 일단 지역 미술관의 전시 콘텐츠를 한국미술의 대표 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알려져, 이우환 동문의 행정과 위생과 관련된 전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작가 연구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동문의 조가 작품 제작에는 ‘관계(關係)’에 등장하고, 최근 회화에는 ‘대화(對話)’를 내세웠다. 이우환 미술관 자체도 이 때문이다. 왜 그의 예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왜 외부의 스폰서와 관계가 중요했는지 묻게 된다고 한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미술평론가이자 예술전문기자 심은복 씨는 이렇게 소망한다.

“이우환 공간이 세계와 교류하고 소통하는 거름이 되어, 이곳으로부터 ‘소통의 힘’과 ‘관계의 힘’이 울려 퍼지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부산미술관의 발전이 어느 세계미술의 발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최고의 29회가 되겠습니다.”
뭉치자 29회, Hurrah 경고!

졸업4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2015년 4월 25일

본회회장 박성철 재경회장 강희철

재민

경남중학교에 YS 동상을 세우자

이요섭 / 27회, 부산현사공교 교장, 전 경남중 교장



모교 경남중교에 근무하는 용마동원들은 전통 있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명예스럽게 생각하며 또래 그에 걸맞게 행동한다. 학생들에게 선배들이 뒤아 놓은 전통과 기풍을 유감없이 가르치는 것도 그런 특별한 인연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재경남중학교 경남중교를 기념할 기회를 마련해서 대입인원 "모교를 한국의 이븐스, 한국의 링컨스, 아메리칸 링컨스"라는 구호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구현해야 하는 당사자는 다른 아닌 모교 재직 동문들이었다.

30년만에 경남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여 재직하는 동안 가장 인상적인 추억으로 남아 있는 것은 학교의 여러 의식 행사에서 모교를 재방문 할 때의 감동이다. 재학생들의 눈빛을 예민하게 하는 1학년 학생들을 반주하여 후배들이 할 준비는 고교는 개인적으로 카드를 갈라주었다. 300년 동안 여러 학급을 옮겨 다녔지만 모교에서 행해진 고교는 물론 선생이 가늘 수 있는 감동이요, 추억이었다.

잊을 수 없는 또 하나는 지난해 부산시헌법재판소 제1회 헌법재판회의 참모이다. 6대, 7대 할아버지 고향생들이 가까이 시골로 귀향하여 합창을 한다는 것이 그날 거구다. 그 시골의 은사들이 직접 지휘하고 반주할 하는 공연은 전체의 감동 수 있는 가슴 벅찬 경험이었다. 선배들과 재학생들이 함께 모교와 원원가를 부르면서 한이상이면 그날 밤의 행사는 정말 멋진 장관이었다. 특히 노구를 단정하고 의자에 무대 오르신 이자구 선배님과 원리 서울에서 가까이 내내오신 정봉호 선배님이 보여 주신 재차 사들의 열정과 감동도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 해주었다. 직접 가르치신 은사님들이 졸업하고 후배들을 가르치는 재직 교사들에게도 존경심을 감시하는 마음은 어찌 잊는 것은 우리 후배들이 공경하는 아름다운 전통이다

모교의 당연한 현실을 직시하자

경남중과 경남고는 같은 뿌리도 전통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동문들은 전국에서도 최상의 역량과 경험을 자랑하는 동문들로 모인 것이다. 본부동원에서는 경남중학교의 학업우수 학생을 학원별로 5명씩 선발해서 해마다 15명씩 졸업이수를 시켜 주고, 이후부 후원을 위해 금액 입학 비용을 보조해 주고 있다. 이런 지원은 다른 중학교에서는 찾아보기 드물다. 동문들은 학교가 잘되어서 격려를 해주신 것도 다른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경남중학교에 가지는 감동이다. 이와 경남중학교는 경남중보다 더 후한 고려와 지원을 받고 있을 것이와 생각이 된다.

경남중 학생들은 대다수가 경남고로 진학하기를 원하지만 본분은 행복 맞고 원하는 대로 모두 진학할 수 있는 것이 안락하다. 그래서 해마다 400명 정도 경남고로 진학하고 있다. 경남고는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로 지정되어 부산 시 교육청과 사후유지보장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본분들은 본 분들의 학습을 지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를 원



한 가지 더 기억할 만한 대입생 양에 대한 동문

행들 통해 우수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선발할 수 있어야 경남중교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할지 갈라주는 선 것이다. 우수한 학생들이 부족하고, 외고 등으로 다 빠져 버리게 되면이다.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그들을 계속 관리해 주어서 좋은 결과를 내면 우리 모교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이고, 좋은 후배들이 계속 나와야 동문들도, 학교발전도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재경남의 모교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을 숨길 수가 없다. 선배들이 좋은 명성과 영광을 통해 재학생들이 과연 아껴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느끼는 동문들이 적지 않다. 선배들이 기대 수준이 높다 보니 그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눈에 띄게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학생 후배들도 점차 선배들 못지않은 역할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소망은 큰 것이다. 모교가 수 있을은 물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경남중이 당연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옛날의 경남중이 아니다. 선배들이 아끼고자하는 것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 민방위 없이도, 학력 수준은 서구에서 중학교에 국한해도 최하위 그룹이다. 부지 중 내리는 지위를 해운대지역에 내준 서구에서 중학교와 교가 학력문제 등에서 한이상이면 치자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서구 지역의 최하위까 지위를 떨어뜨리는 더 심정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해 경남중교를 한 스텝으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옮길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민방위 그런 기회가 다시 온다면 대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그런 기회가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모교 당국의 노력은 당연한 일이지만 선배들도 후배들의 학력 수준 신장을 위한 다양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경남중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국무총리를 배출한 유일한 중학교이다. 또한 현재 10여 대교도 모두 경남중 출신이다. 대한민국의 발전기, 역사를 쓰고 있는 인물들이 학창시절을 보낸 곳이 바로 경남중학교인 것이다.

꽤의 감동일 뿐 대통령은 각별한 인연으로 이어져 있다. 그분이 경남중 재학생이기에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이란 컷글을 약속할 특선마리에서 최 신희 일호는 동자가 YS의 컷글을 표상하는 삼림도 같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회 의원 시절 모교를 찾아오시 거쳐서 주민 모습을 가까이하는 정문일이 있을 것이다.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을 직접하고 담대하게 끌어온 YS의 홍보를 주력하여 학창시절을 보냈던 동문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경남중과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

그래서 재학생 후배들에게 심적적인 교과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방안으로 YS의 동상을 건립할 것을 제안한다. 구구하게 논쟁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유심대로 말하자면, 경남중에 YS가남은을 건립할 필요이지만, 최소한 동상이라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YS의 동상은 이미 거대 명적인 생가와 대통령기록관 그리고 용마동에 각각 세워져 있다. 특히 김영삼기념관기록관은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과 관련하여서도 많은 의미를 줄 것 이고 있다.

80년대에와 함께 경남중으로 옮긴 김영삼은 재경남 나라는 위해 큰 공헌을 하셨다는 뜻을 물었다. 김영삼 앞에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이라는 뜻을 새겨 주었다. '이 분이 있었기'라는 의미로 '미래의 대통령'으로 굳히기로 결정하셨다. '100년'의 꿈을 세우고 고교와 연금의 반석'을 지니 그는 마침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되었다.

'영선'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많은 고통과 병환을 경험했다는 시가라는 것이다. YS의 동상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후배들도 해를급 스스모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정진하도록 인도하는 시가라고 지성이 될 것이와도 말하는 조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민주주의, 민주공화국, 민주주의의 힘으로 모교와 동문들을 스스로 일으켜줄 것이다. 정외교도 조국보존 후배를 이끌어갈 위력도 있지만 훌륭한 선배가 도모할까?

장차 우리 용마동원들은 어떤 모습일지 생각을 한다. 우리 동문회가 더욱 번영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1월'이 대한 가지이겠다. '연'까지 지속가능할까'라는 영원한 걱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대체로 요즘 학생들의 예고같은 대한 결집도 한층 높아져서 보인다. 이것은 동문회가 당연한 현실이고 선배들이 후배들이 할 숙제이기도 하다.

꼭 보고 싶은 순간에 꽃피게 꾸민다면 이미 늦었다고 해서 아까울까? 꾸미지 않는다면 보고 싶은 꽃을 영장 할 수 없다. 지금이 꽃을 볼 수 있지만 일단 꽃피게 꾸미는 것이 중요하다. 모교, 경남중, YS 동상을 건립해야 하는 과제를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저희들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졸업 20주년 출석명 행사는 저희들에게 또 하나의 추억이 될 것입니다. 동기들의 협조와 선배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이제 마흔입니다. 동기회 조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모교와 동창회를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49회 동기회 본부회장 최경열 재경남중 서인석

손으로 직접 한 잔씩 한 잔씩

HUROM

"내겐 너희가 선물이야"

사랑하는 가족들이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손으로 직접, 한 잔씩 한 잔씩 휴롬주스를 만들고
약스러운 마음속 말 한마디 적어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선물이란 그런 것이니까요

HUROM



휴롬이
특별한
이유



자연의 맛 그대로!

자연으로부터 온 채소·과일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섭취



섭취가 간편함!

많은 양의 채소·과일을
한 잔으로 간편하게



영양이 다양한!

비타민, 마그네슘 등 채소·과일의
다양한 영양을 골고루 섭취



효소가 살아 있는!

채소·과일을 가공의 과정 없이
그대로 담아 효소가 살아 있다!